

'제3시대 통합'... 다급한 이낙연·느긋한 이준석

민주 탈당과 "설 연휴 전 통합"... 개혁신당은 속도조절 나서

'제3시대 통합'을 추진중인 신당 창당 세력들이 연대에 대한 큰 뜻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통합 속도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드러내면서 이들의 조기 통합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 미래'와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이 추진중인 '미래대연합' 등 야권발 신당은 다음달 설 연휴 전에 '제3시대 통합'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장 '개혁신당'을 추진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야권발 신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신중론을 보이면서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개혁신당(가칭) 이준석 정강정책위원회장은 설 연휴 전 '제3시대' 통합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15일 "솔직히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 "공천 스케줄 때문에 급한 것은 알겠지만, '이낙연 신당'이 아무리 빨라도 이달 말 전에 창당하긴 힘들 것"이라며 "그러면 창당하자마자 합당하는 것인데 일

정한 사람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린 이달 20일께 정당 절차를 완료하는데 창당 자체가 합당용 창당 같이 된다"며 "모양새도 안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개혁신당 내부적으로도 선명한 보수정당 지향이나, 빅텐트 지향이나를 놓고 갈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기는 빅텐트는 누구랑 (하느냐) 보다 어떻게, 왜 합치냐가 중요하다"며 "서두른다고 될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김종민·조웅천 의원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은 내달 설 연휴 전에 '제3시대' 통합을 마무리하고 단일 정당을

떠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이원욱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2월 초중순, 가급적이면 설날 전에 국민들의 설 밥상에 '정말 저런 정당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중심이 돼서 지금 정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준석·이낙연·양향자·김태섭 대표 등을 다 모아 하나의 정당으로 가보자고 하는 목표"라며 "하나의 제3시대 정당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민주당의 현역 의원도 합류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행자가 '총선 때 기호 3번이 가능하겠느냐'고 묻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답했다.

역시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인 조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일단 1차 목표는 설 전"이라며 "서로 실무적으로 물밑 협상을 하고 있어서 스케줄 같은 것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는 민주당 탈당 인사들 위주로 구성되는 만큼 정치적 견해에 큰 차이가 없어 설 연휴 전 연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야권발 신당을 이끄는 이원욱이 속도 조절에 나온 모양새여서 설 연휴 전 '제3시대 빅텐트'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비례제,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 민주당 입장 표명 촉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원래대로 해야 한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고, 우리 입장은 명백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가 86일 남았는데, 아직도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 롤 미팅이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지금의 제도(준연동형 비례제)가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게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 기형적 방식으로 거기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 주도로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선거 직전 위성정당을 만들어 준연동형 취지를 무색하게 한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 법이 바뀔 때도 저희는 찬성하지 않았다. 우리 입장은 명백하지만, 왜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례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라고 물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지를 놓고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 위원장은 또 "과거 민주당이었다면 내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 시 세비 반납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먼저 제시했을 때 지금처럼 피하고 억지 쓰고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과감한 정치개혁안을 내놓으며 우리와 경쟁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에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는다. 이 두 가지(불체포특권 포기 and 세비 반납)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라고 민주당을 압박한 바 있다.

"격차 해소·정치개혁 초점"

국힘 공약 개발본부 출범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86일 앞둔 15일 공약개발본부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총선 공약 마련에 나섰다.

이르면 이번 주말 1호 공약을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주요 공약 발표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공약의 핵심은 우선순위에 있다"며 "지금 시대에 동료 시민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꼼꼼히 체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제시하고 그것을 정부·여당으로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여러 가지 공약이 개별적으로 있을 텐데,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 해소,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며 공약의 방향을 제시했다.

공약개발본부를 이끌 총괄본부장은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정우성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6.3%'

리얼미터 조사...국힘 39.6%·민주 42.4%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1월 2주차) 전국 18세 이상 2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1월 2~5일)보다 0.6%포인트(p) 오른 36.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0.5%p 내린 60.3%였다.

리얼미터는 "특검 거부권 행사",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 부정적 여파가 남아있는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다주택자 세제 변경 예고',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등 민생 회복을 골자로 한 행보가 자영업자, 가정주부, 30대 등 일부 계층의 긍정 여론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4.6%p ↑), 부산·울산·경남(3.1%p ↑)에서 올랐고, 서울(3.1%p ↓),

대전·세종·충청(1.05%p ↓)에서 내렸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2%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0%p 오른 39.6%, 더불어민주당은 2.1%p 내린 42.4%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서 7.9%p였던 양당 간 차이는 2.8%p로 일주일 만에 오차범위(±3.1%p) 내로 좁혀졌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40%에 근접하며 지난해 3월 2주차(41.5%) 이후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총선 브리핑

김경만 "서구 소상공인 지원해 골목 상권 활성화"

광주 서구를 출마 선언

김경만 국회의원(민주·비례)은 15일 "더 새로운 광주시 서구를 위해서는 일하는 방법을 알고 힘 있는 재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오는 4월 총선 광주 서구를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이끌 수 있는 민주당의 적임자를 뽑는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품앗이수 수질 개선 문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떠나는 청년, 군공항-마북동 탄약고 이전 등 서구가 직면한 현안을 제시하며 자신이 '서구의 일꾼'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민생, 경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며 "정체된 서구, 불편한 서구, 참고 살아야 하는 서구가 아닌 경제가 살아나 활력있는 서구, 변화가 눈에 보이는 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 완전한 새로운 서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가 살아나는 서구 ▲일자리 많은 서구 ▲민생이 더 나아지는 서구 등을 약속했다. 이어 "광주시 서구에는 소상공인 비율이 30%를 넘는다고"며 "골목 경제가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산다. 골목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가 소상공인 자금지원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나 기자 khn@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